



http://www.shinha.es.kr

글샘터 도서관 소식

신하 21-264
교무실 : 636-6750
담당 : 도서관



도서관 공지사항



행복한 책읽기 속으로

1. 12월 도서관 행사 안내

- 기간: ~ 12. 17.(금) 까지
- 방법 (용지-A4 크기)
 - ① 동시 쓰기
 - ② 시에 어울리는 그림 그리기
 - ③ 완성된 시화의 뒷장에 학년반 이름쓰기
 - ④ 도서관에 제출하기
- : 잘 쓰고 그린 작품 뽑아 선물

2. '2021 책숲 걷기 프로젝트'

- 책숲 걷기 프로젝트 노트 제출
- 기간: 11. 29.(월)~ 12. 3.(금)

3. 6학년 대출 정지

- 졸업으로 인한 대출 정지
- 12. 20.(월) 부터

4. 겨울방학 도서관 이용 안내

○ 장서점검 기간 '휴관'

- 2022. 1. 5.(수) ~ 1. 28.(금)

- 효율적 자료 관리 및 원활한 서가 운영을 위해 겨울방학에 장서점검 실시

○ 2월엔 개방합니다.

- 월~금 9:00 ~16:00

○ 겨울방학 독서교실 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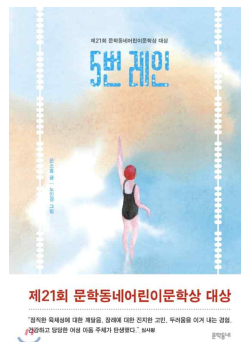
- 기간: 2022년 2월 진행 예정
- 대상: 3~4학년 20명
- * 자세한 사항은 안내장으로 공지



아홉 살 인생 공부

원유순 / 꿈터 / 2020

제 몸보다 큰 가방을 메고 힘겹게 오르는 남자아이가 있다. 후~! 휴~! 소리를 내며 계단이 무너져라 길고 큰 한숨을 내쉬는 표지 속 주인공은 누구일까? 책장을 넘기면 강힘찬, 강당찬이라는 앙숙 남매의 익살스러운 표정이 눈에 띈다. 아마도 표지 속 주인공은 두 명중 하나인가 보다. 이름처럼 힘차고 당차게 싸우는 남매. 서로 다르게 보이려고 왕방울 눈을 만들고 돼지코를 만드어 보지만 둘은 영락없는 쌍둥이 남매이다. 바보 천재 만복이와의 만남을 통해 양보하는 법을 배우는 당찬이와 별난 숙제를 하면서 아빠의 발을 보고 코끝이 찡해지는 힘찬이. 이 둘은 오카리나와 자전거를 통해 서로를 배려하고 이해하게 된다. 요즘처럼 학교생활이 자유롭지 못한 아이들이 잠시나마 책 속의 친구들과 어울리며 이해와 배려를 배우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



5번 레인

은소홀 / 문학동네 / 2020

주인공인 나루는 유년 시절의 마지막을 보내고 있는 초등학교 6학년이다. 수영선수인 나루의 인생 목표는 단 하나, 경기 우승이다. 그 목표를 위해 오롯이 훈련에만 집중하는 한강초의 수영부 에이스 나루는 라이벌 학교의 초희에게 우승 자리를 내준 후 흔들리기 시작한다. 하루하루 불안한 주인공과 다른 레인에서 각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친구들과의 솔직 담백한 이야기를 담은 이 책은 어떻게 보면 또 다른 세상에 들어가기 위해 준비해야 하는 열세 살들의 이야기이다. 누군가는 꿈꿔왔던 목표를 더욱더 선명하고 반듯하게 세우고 또 누군가는 새로운 것에 대해 도전하고 또 다른 누군가는 꿈꾸던 것을 끝내기도 한다. 이들은 같은 열세 살을 보내고 있지만 각자 다른 레인에서 각자의 방식으로 있는 힘껏 달리고 있다.

“이것도 기록하느냐?” 세계기록유산과 규장각

세계6위, 아시아1위?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부문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순위이다. 숫자가 중요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에게 이렇게 귀중한 기록유산이 많았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제법 높은 순위이다. 세계기록유산은 1992년부터 등재를 시작했는데 각국의 도서관 등에 보관된 소장문서, 도서, 구전 자료, 시청각 자료 중에서 선별된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세계기록유산은 얼마나 될까? 지금까지 모두 11개가 세계기록유산에 올라 있다. 1997년 <훈민정음>과 <조선왕조실록>을 시작으로 2001년에는 왕의 비서관격인 승정원의 <승정원일기>와 현존하는 세계 최초 금속활자본인 <불조직지심체요절>이, 2007년에는 <조선왕조 의궤>와 <고려대장경판(팔만대장경)> 및 <제경판>이, 2009년에는 허준의 초판 완질본 <동의보감>이, 2011년에는 <일성록>과 <5·18 민주화운동 기록물>, 2013년에는 <난중일기>와 <새마을운동기록물>이 등재되었다.



이들 기록유산 중에 우리가 가장 손쉽게, 그리고 직접 만날 수 있는 곳이 바로 서울대학교 안에 있는 규장각이다. 고도서 17만 5천여 책, 고문서 5만여 점, 책판 1만 8천여 점 등 총 30만여 점의 자료가 소장되어 있는데 그중 세계기록유산 <조선왕조실록>과 <승정원일기>, <조선왕조 의궤>, <일성록>을 보관하고 있다.

규장각은 정조 때 만들어진 왕실도서관이다. 역대 왕의 유물을 보존하고, 국정 자문 학술기관으로 역할을 했던 곳이다. 세월이 지나 해방 이후 규장각 도서관들은 규장각 경성제국대학 부속도서관에서 서울대학교 도서관으로 옮겨왔다.

500년 동안 조선은 세계에서 으뜸가는 “이것도 기록하느냐?” 기록의 나라라고 할 만큼 엄청난 기록물을 남겼다. 국왕이 죽은 후에는 바로 실록을 만들어낸다. <조선왕조실록>이다. 태조부터 철종까지 25대 472년, 17만 2천여 일 동안의 일들이 연월일 순서에 따라 편년체로 서술되어 있다. 사관이 하루 종일 왕의 바로 곁에서 왕의 모든 행적과 나랏 일을 낱낱이 기록했던 사초를 바탕으로 만들어졌다. 사관이 얼마나 철저하게 직필했는지 사관을 따돌리려고 애쓴 임금들도 있었다고 한다. 호방했던 태종조차도 어느 날 사냥에 나갔다가 말에서 떨어졌는데 그 첫마디가 “이 일을 사관이 알지 못하게 하라”였다고 한다. 그러나 이 말마저도 <태종실록>에 기록되었다! 총1,893권 888책으로 정치, 외교, 사회, 군사, 법률, 경제, 산업, 교통, 통신, 풍속, 미술, 공예, 종교 등 조선의 모든 것을 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양으로도 엄청날 뿐만 아니라 이렇게 오랜 기간을 기록한 역사서는 세계에 유례가 없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 뿐만이 아니다. 동양의 군주 사회의 정치와 권력 구조, 정책 등에 대한 중요한 자료로 인정받고 있는 <승정원일기>는 왕의 비서 기관인 승정원에서 날마다 쓴 일기를 모아 놓은 책인데, 조선 초기부터 작성되었지만 지금 남아있는 것은 1623년 3월부터 1910년 8월까지 288년 치만 남아 있다. 그런데도 2억 4천 250만 자로, 3,243책에 이른다. 단일 기록으로는 세계에서 가장 방대한 역사 기록물로 인정받고 있다. 또한 매일의 날씨가 정확하게 기록되어 17세기 초부터 20세기 초까지 288년간의 기후와 기상상태를 알 수 있는 중요한 자료이다.

<의궤>는 또 어떤가? 조선 왕조 의궤에는 유교적 전통에 따라 열렸던 임금과 왕비의 결혼, 세자 책봉, 임금의 행차, 장례식, 궁궐건축 등의 주요행사가 그림과 글로 마치 컬러사진을 보는 것처럼 생생하게 기록되어 있다. 우리만이 가진 독특한 기록 유산으로 전 세계학자들도 기록유산의 꽃이라 평하고 있을 정도이다.

<일성록>은 1752년부터 1910년까지 왕의 입장에서 쓴 국정 일기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정부의 공식기록이다. 정조가 왕세손 시절에 쓴 <존현각일기>에서 출발해 정조가 기록하다가 그 뒤 정부공식 업무로 계속 편찬되었다. 현존하는 것은 1760년부터 1910년까지의 기록이다. 모두 2,327책이다.



겨울방학을 이용하여 대학도 구경하고, 조상들의 철저한 기록정신도 만나보길 권한다.

- 출처: 고래가 숨쉬는 도서관 -